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Dec 2019
Vol.7 No.11

- 추수감사주일 / 세례식
- 청년부 / 교육부 소식
- 칼럼 / 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Thanks be to God'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ICY, IC Kidz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체임버 팀이 이요셉 전도사님의 지휘에 맞춰 아름다운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최호기 기자 · 관계 기사 5면>

■ 제1회 주안에 장학금 수여식

지난 11월 9일 벨리채플에서 제1회 주안예교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꿈나무를 위한 장학위원회가 지난달 비로서 성취되어, 최혁 담임목사의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0여명의 이사로 발족 되어진 위원들의 헌신에 힘입어 8명의 고등학생, 15명의 대학생, 5명의 신학생으로 총 28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질 장학생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교회는 주안예교회라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기를 바란다. 그



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일꾼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여 주신 장학이사 한 분 한 분께 감

사의 인사를 올린다는 말씀도 장학생들은 잊지 않았다. | 임용자 기자 |

■ 시무장로 선출 투표 실시



주안예교회 새로운 시무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11월 3일 밸리채플(11월 10일 MP채플)에서 실시됐다. 차분하고 질서 있게 치러진 선거에서 김경배 안수집사(밸리)와 오찬국 안수집사(MP)가 유효투표의 3분의 2이상을 얻어 시무장로로 피택 되었다. 두 분은 앞으로 1년간 소정의 훈련과정과 노회 장로고시를 거쳐 시무장로에 임직하게 된다. <이광영 · 주디 최 기자>

■ 주안에라이프 가을학기 종강

어제 시작한 것 같다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주안에 라이프 가을 학기 종강식이 지난 13일 밸리채플 주안예교회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잔칫날을 방불케하는 가을맞이 테이블 세팅과 각 과목마다 학예회처럼 그간의 배운 실력을 뽐내며 마음껏 웃는 행복의 시간을 가졌다.

주안에라이프 학기 중 가장 많은 130여명이 등록해 20개 프로그램을 알차게 마무리했다. 모두 23명의 강사들이 열성으로 지도했으며 21명의 주안에 장금인들이 매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내므로 지역사회에서 공식 인정 받는 음식솜씨를 발휘하였다.

| 임용자 기자 |



■ MP 안수집사회 하이킹

지난 11월 17일에는 MP 안수집사회에서 주최한 Hiking이 있었다. 새벽예배 후 교회를 출발 Chantry Flat 으로 모두 17명이 참가했다.

날씨가 덥지도 않아서 수월했고 올해로 이번이 두번째라 좀 더 익숙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안수집사 회원들의 심신을 단련하며 사랑을 나누었으면 한다. 요즘에 산불이 자주 나서 산에서 요리가 금지되어 Local 공원에 내려와서 좀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었다. 성도님들이 시장들 하셔서 맛있게 잘 드시고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민창식 안수집사 |



■ 마하나임 성가대 모임

지난 11월 24일 주일 예배 후 이방걸 장로택에서 MP채플 마하나임 성가대와 봉사국 그리고 새신자국의 멤버들이 2019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평가 하며 또한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가졌다.

최혁 담임목사도 참석하여 일 년간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인들을 위한 많은 봉사를 한 데 대해 치하를 하며 2020년 새 해에도 변함 없는 활동을 당부하였다.

먼저 이해령 권사가 정성껏 준비한 아라비안 스타일의 독특하고 맛 좋은 만찬을 즐긴 후 최혁 목사와 이성우 전도사의 인도로 찬양을 하며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도 전하고 서로 격려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마하나임 성가대와 봉사국 그리고 새신자국 멤버들이 은혜롭고 역동적인 활동을 하였



고 이것이 주안예교회가 2019년에도 발전하며 뜻 깊은 은혜의 한해를 보낼 수 있게 한

모든 노력의 한 부분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한다. | 나형철 기자 |

■ 캐나다에서 온 편지



MP채플 성가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습과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위해 힘쓰신 모습들이 보이기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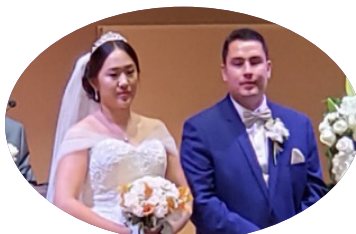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이번 감사의 편지를 쓰는 기회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 사랑의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에 진심을 실어 보내봅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손길과, 성가대원 분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구신욱 권사 드림

■ 벨리 17목장 "특별한 가을 여행"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17목장의 12명 목원들은 2박 3일 동안 자이언 캐년 트래킹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의 특징은 남편들을 집에 두고 아내들만 여행을 다녀왔다. 얼마전 홀로 되신 두분의 권사님들을 고려하여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기 위한 작은 모임이었던 것이다. 또한 네분의 권사님들은 교회 오신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서로를 알아가고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회 알림이 역할도 하였다. 행복과 감사의 시간으로 채운 짧고 아쉬운 여행이었다. | 임용자 기자 |

황금석, 황화진 집사(벨리) 본교회 황금석, 황화진 집사의 장녀 제니스 양과 데이빗 군이 주안예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새신랑의 직장을 따라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새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혼 축하합니다!!!



♥ 결혼 축하합니다! ♥



송서현 성도, 김민재 전도사 주안예교회에 ICY 전도사님으로 사역 중인 김민재 전도사가 송서현 성도를 신랑으로 맞아서 지난 11월 9일 벨리채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랑의 힘"이 빛어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기대한다.

■ 세례 · 성찬식



11월 13일 MP채플 주안에생명(11월 15일 벨리채플) 예배 중 세례 · 성찬식이 거행돼 3명의 성인 세례자와 4명의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유아세례를 받는 4명의 아이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다는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

〈수세자 명단〉

벨리 세례: 유승윤 성도, 유승임 성도, 송지연 성도

MP 유아세례: 박세린(박동준/이지혜), 장하라(장주성/김지연), Damian Han(Dai Han, Grace Kim), Katheryn Kye(Daniel Kye, Esther Kye) | 오희경 기자 |

■ 세례 소감/ 유승임 성도(벨리채플)

“2년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저를...”

오늘이 우리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로운 날입니다. 과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의 삶은, 친정도 불교 집안이고 시댁 또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님과, 절에도 가끔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잘 하는건지 알았습니다. 일요일은, 일주일 열심히 생활하면서 휴식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골프 나가서 그렇게 기분전환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 있듯 지내 왔습니다.

2년전, 60이 되던 어느날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게 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떤 삶으로 기억이 될까? 그래, 힘든 일도 있었지만 15년 동안은 경제적인 걱정 안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해보고 싶은 일도 하면서 나를 후회없이 잘 살아온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한 후 두달쯤 지나서 남편이 많이 아팠습니다. 2017년 11월에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그 독하고 힘든 항암치료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 속에 치료가 잘못되어 2018년 2월에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고 배에 가스가 팽 차서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스가 밖으로 나오질 않으면 암세포가 커져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술 하루전 통증으로 너무 괴로워하던 남편이 "엄마 나 좀 살려달라고" 애



워 아파하던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면서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를 몇번씩 외치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불러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않아 열흘동안 안나오던 가스가 정확하게 3시간 간격으로 세번에 걸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날 새벽 많이 울었습니다.

작년 1월 30일 새벽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급한 수술 안하고 간단한 시술로 위기를 넘기고 방사선 치료 3개월 후에 몸이 회복 되어서 1년 전부터 교회도 다닐 수 있으며 비즈니스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도 모른채 기도만 했던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원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기가 생기면서, 남편에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귀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영원히 살 길을 열어 주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이라는 복음으로 인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주안예교회 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최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간직하며 살 수 있어서 더 감사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던 말씀들 항상 감동입니다. 가족같은 우리 목장을 만나서 또 감사 드립니다.

교회 다닌 후, 매주 목장에서 같이 암기하는 성경 말씀을, 산보하는 도중 틈틈히 읽고 암기하는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나눕니다. "삶이 편안했던 아프기 전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린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때보다 기도하며 사는 지금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고 있음으로 고백 합니다. 이제는 허전하게만 느껴졌던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려 합니다. "믿음은 기도이며 영의 세계를 기도로 움직이게 하면 승리한다" 라고 저의 믿음의 설레임은 시작되었습니다.

■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은혜 측량 못할 그 사랑 '감사 찬양'

11월 17일은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이였다.

언제나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특별히 한해동안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키워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였다.

어느때보다도 은혜스러웠던 성가대의 찬양은 청년부와와 연합으로 더욱 빛을 발하였고, 감사의 표현을 악기연주와 온몸으로 보여준 학생부들의 특별순서도 예배가 더욱 풍요롭게 드려지도록 돕기에 충분했다. 각 목장과 권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손수 만

들어서 대접하신 음식들은 그저 입으로만 느끼는 만족함을 넘어서 영의 충만함까지 공급해주는 최고의 보양식 이었다.

이렇듯 2019년에도 주안예교회의 추수감사 예배는 사랑과 감사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예배로 드러졌다. | 오희경 기자 |



12월... 쉬임 없이 달려 온 한 해, 해마다 이맘 때면 습관처럼 뒤를 돌아 본다. 삶의 자취, 공동체 속의 자신의 모습을 앨범을 들여다 보듯 찾아 본다. 디지털 세상이 되어 더 이상 사진을 프린트해서 보관하는 것이 점차 사라져 가는 요즘이라 "행복 사진전"은 색다른 느낌을 준다. 주안예교회 가족들의 지난 1년을 단면처럼 보여주는 사진들이 밸리채플 긴 벽에 빼곡히 붙어있다. 저마다 내가 어디에 있을까 기대하며 찾아 본다.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도 빠짐 없이 천국의 벽에 붙어있겠지, 걸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담겨진 속사람의 모습이...
(사진국)



■ IC Kidz 학부모 미팅

아이들 예배 · 성경공부 위해 기도모임 갖기로

11월 3일(주일) IC KIDZ 스태프들이 미리 가져다 놓은 점심을 함께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11월달 KIDS 학부모 미팅이 시작되었다.

이성우 전도사가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한 수고로움으로 25명이 넘는 부모들이 참석했고, 영어가 편한 부모들을 배려하여 서로 서로 통역도 해가며 진행 되었다.

이성우 전도사는 먼저 11월 한달 동안의 말씀 주제는 '존귀함(Honor)'이라고 하며, 우리 Joy와 키즈 아이들이 내 친구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나도 존귀함을 받을수 있다는 것과 인종이나 삶의 환경, 건강상의 문제등에 상관없이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아이들이 설교를 통해 배우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날 미팅 에서는 10월 31일 있었던 '할렐루야 나잇'에 대한 평가회도 겸했는데, 내년에는 '초대'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교회 안이 아닌 바깥으로 확장하여 좀더 시간을 두고 '초대장'을 준비하여 교회근처의 타인종과 이웃 주택단지 분들도 교회



로 초청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넓혀 가기로 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과일 1~2가지를 아이들에게 가지고 오게 하시되, 사라 갈 때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서 "하나님께 올해 추수한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드리면 좋을까?" 물어보고 스

스로 고르게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미팅 이후 1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 부터 '학부모 기도모임'을 시작하기로 하고 단, 한명의 부모가 모이더라도 꼭~ 할 것이며, 우리는 '기도'로 밖에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부터 지킬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미팅을 끝맺었다. | 이성은 기자 |

■ PSG 미팅

새로운 임원선출... 자녀들 예배 도우미 다짐

11월 10일(주일) KIDZ 예배를 끝내고 부랴부랴 MP친교실로 들어서자 타고 냄새와 함께 오랜만에 모인 15명 남짓한 ICY학부모들이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

타코는 지난번 'Praise Night'에 먹었던 타코트럭이 너무 반응이 좋아 또 오더를 한 모양, 직접 철판에 구워주는 또피야로 싸먹는 타고는 미국와서 먹어본 타고 중에 최고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저년도 PSG 회장 민유선 집사가 2019~2020년 PSG(Parent Support Group) 새 임원단을 소개했다. 회장은 민유선 집사가 유임되었고, 부회장은 최애솔리 권사, 총무는 문수경 권사, 회계는 김효진 집사가 선출되었다.

임원 소개에 이어 처음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부모들을 위해 한명씩 돌아가며 자녀 이름과 자기소개 하는 시간이 있었고, 민집사가 11월 22일 Movie Outing 계획과 함께 12월 Plan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한 뒤 PSG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만든 그룹이며 임원들만 해야하는 일이 아닌 학부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 힘을 모아 주셔야 함을 강조했다. 또, 모임 때마다 기도를 통해 중보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과, 오렌지



카운티지역 아이들 금요일예배 라이드 문제와 예배시간 전에 핸드폰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원 국장의 아이들 스스로 물을 만들고 그 물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일임을 알게 하며,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된다는 의견에 많은 부모들이 동의했다.

아이들이 금요일예배에 나오게 되면서 예

전보다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고, 아이들의 영성성장에도 주일날 드리는 1번의 예배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모들이 가능한 아이들이 금요일예배에 많이 동원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역자와 임원, 부모들이 기도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라 믿는다. | 이성은 기자 |

■ IC Kidz & Joy 추수감사주일 예배

받은 은혜 떠올리며 '감사의 편지' 또박또박

11월 17일 주일, 임시에배처소에서 1부에 배가 끝난 뒤 모든 선생들과 스태프들은 짧게 기도회와 회의를 끝내고, KIDZ 예배실로 모여 입고 온 검정색 옷 위에 남성들은 Pilgrim 모자로 여성들은 흰 앞치마와 두건을 쓰고 부지런히 추수감사주일 특별 예배를 위해 데코를 하였다.

상단테이블에는 선생들과 아이들이 가지고 온 과일과 야채를 정성껏 올려놓고 낙엽과 보릿대, 파리 등으로 가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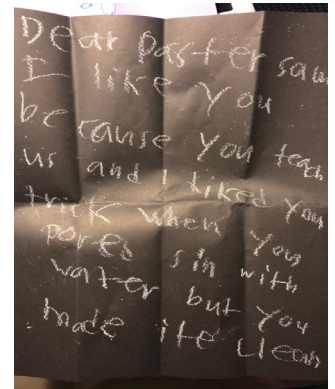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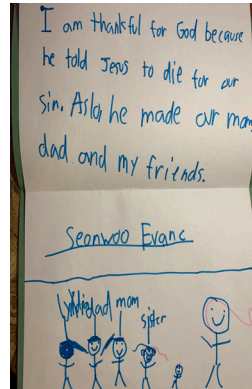
이성우 전도사의 설교가 끝난 뒤 공과공부 시간에는 반별로 하나님과 전도사님, 선생님과 국장님께 감사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편지쓰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편지를 쓰는 동안 총무부 스태프들은 아이들과 함께할 팅스기빙 만찬을 준비하느라 손이 바쁘다.

제니스 권사가 미리 준비해온 마카로니 and 치즈와 애플사이드, 특별 레시피로 구



워운 햄은 너무 먹음직스러웠고 거기에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까지 더해져 너무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다. 오랜만에 죠이&키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식사로 행복한 웃음이 가~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아래 사진: 아이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쓴 감사편지) | 이성은 기자 |



■ IC Kidz 교사 격려회

교사 · 스태프들 사랑과 섬김에 마음 다해 감사

11월 3일(주일) 오후 4시반 Alhambra의 한 레스토랑에 IC KIDZ의 전도사와 스태프들, 교사들로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동안 키즈를 위해 고생 했던 니콜전도사에 대한 '감사'와 새로 키즈사역을 맡은 이성우 전도사에 대한 '환영' 'VBS' 부터 '할렐루야 나잇' 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스태프들과 교사들의 수고에 대한 격려차 만들어진 회식자리 라고 한다.

피자와 스파게티도 맛있었지만, 전도사와 스태프, 교사들의 겸손한 언행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격려하며 위하는 모습이 더 귀하게 보였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키즈 화이팅~!!!! | 이성은 기자 |



■ 한글학교 족자전시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다한 붓글씨... 예쁘게 걸렸어요

주안에 한글학교(교장: 장은경) 는 지난 11월 22일(금) 부터 3일간 서예를 통해서 만든 족자 30개의 전시회가 있었다.

임흥석 집사님의 세심한 지도로 진행된 흥미롭고 즐거운 서예시간에 학생들이 각자 붓글씨로 쓴 것을 장은경 교장 선생님이 하나 하나씩 정성스럽게 족자를 만들어 주셔서 전시회가 가능하였다.

최혁 목사님께서도 선생님과 학생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섬김에 감사하신다 하면서 전시회를 매해마다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다.

| 임용자 기자 |



■ 주안에일꾼/ 임흥석 집사(밸리)



서예의 멋과 아름다움
후세들에 전해 주고파

올해 3월에 주안에교회에 정식등록 하고 예쁜 외손녀, 하늘이와 함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임흥석 집사를 소개한다.

이번 주안에라이프에서 12주 동안 서예를 가르치고, 더욱이 최근에는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쳐 주었다. 붓글씨에 필요한 용품 셋트를 직접 가지고와 친절히 학생들에게서예의 기본을 알려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붓을 먹물에 찍어 예쁘게 그림을 그리듯이 붓을 돌리는 그 기묘한 맛에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붓과 먹물이 같이 만나 예쁜 글을 써 내려가듯이, 우리 역시 주안에교회에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자.

| 임용자 기자 |

■ 코람데오 아우팅



11월 17일, 추수 감사 주일 예배 이후 코람데오 청년부는 오랜만에 볼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며칠 전 결혼식을 올린 송서현 형제가 결혼식에 도움을 준 청년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피자와 치킨을 제공하여 다 함께 볼링장에서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졌다.

두 팀의 형제들이 자매들의 응원을 받으며 치열한 게임을 하였다. 오랜만에 코람데오 청년부가 다 같이 단합하여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

| 양하민 기자 |

■ Thanksgiving Fellowship

The Bakers kindly hosted a dinner potluck at their home on Nov 22nd. Although many EM men's group were busy with their Friday schedules, those who attended enjoyed a mixture of Korean, Armenian, and American cuisines. We enjoyed good music and each other's company. Thank you Ernie and Misuk for your hospitality.



If you are a man in your 40s, join our group for nights of sport, potluck, and fellowship. Our mission is to edify one another for God's glory.

| Simon Cho 기자 |

■ 제1회 주안예교회 장학생들 소감

2세대 위한 사랑의 후원 '감사합니다'



*'one day pay
the kindness
forward to...'*

I would like to first thank ICCC for allowing this Scholarship opportunity.



I intend to use the money received to help further my education in Medicine, specifically becoming a Surgeon. Ever since I was diagnosed with a heart condition in 5th grade, I had the dream of becoming a surgeon to help others who are in need.

In addition to becoming a Surgeon I aspire to earning my private Pilot license, so that one day in the future I dream of piloting an airplane to go on Medical Missions to help those in need and to spread the gospel through volunteer service.

I am sincerely grateful for the scholarship and the support I have received and ultimately I thank God for allowing this opportunity. I hope to one day pay the kindness forward to other students who are working towards their dream.

Brandon Byon

'passion and joy'

The definition of "passion" is usually passed off as something that "ignites" one's motivation in life and is defined as the driving force of one's commitment/dedication to a certain goal or activity. However, from my own personal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I like to think that passion is expressed through the simple emotion of "joy".

In one way or another, "joy" can clearly be seen as the definite prerequisite for "passion". The moment one feels "joy" from a certain activity or experience is what then leads them to inherit "passion" towards such certain occurrences. An example would be sports. One would first experience the "joys" of catching, hitting, throwing, etc. and develop a greater and greater passion for such a sport after experiencing that initial sharp joy from the start.

Thus, for myself, I have learned that my greatest joys in life come not only from God but also from expanding that same joy towards those around me. Seeing those bright smiles and hearing the blissful laughs across a multitude of people truly being upon a joy in which no other experience here on Earth can compare to. This overwhelming joy eventually led to a realization that my greatest passion in life is to be a vessel of God's joy, a radiant beacon of happiness that allows everyone to shine brightly within God's kingdom.

Though it hasn't been the easiest task, this joyful passion of mine truly allows me to live within God's grace every passing day and it really reminds of how blessed I am to be living such a life.

There are times where my soul and heart are disturbed, beaten by the sorrows of the world, but those are the times in which God ignites the most in my life and allows me to carry out each day with a confident, refined smile. A new day, a new smile. This smile that resides within me is a reflection of God's joy and I do my best to make sure that that joy never burns out. With it, I proclaim that I am a son of God by the name of Joshua Kim. A name that is never unheard of thanks to his overwhelming, sprightly zest. Always turning the negative into positive and uplifting those around him. Many appreciate how he enlightens even the most monotonous atmosphere, managing to open up all who are reticent and delicate. And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this passion for joy is being lived out today.

As for the future, I know that this passion of mine will not dwindle down but will only grow brighter. For this reason, I want to be a counselor, whether it be for a high school or college, and be that shining, guiding light that is able to introduce a brighter path for the younger generations to come. With this same vision also pursue a role in the church and create such paths for the struggling brothers and sisters that God puts into my life. These paths, though filled with prosperous struggles and hard-fought tears, being ones that I pray will bring upon the greatest joys and blessings into their lives.

Joshua Kim



■ 크리스마스의 추억

‘고요한 밤~’ 그 아련한 새벽송

예수를 믿고 40년을 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내 생애 가장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소개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뜻있는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12월 24일 초저녁부터 교회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자정이 다가 올 때쯤 두툼한 겨울과카와 교복코트를 입은 단발머리에 까까머리를 한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의 사이에 끼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손이 시려요~ 발이 시려요~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 발이 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위의 가사말대로 우리의 고향인 한국의 겨울은 참으로 춥다.

LA에 사는 지금은 그 겨울이 그리울 때가 있지만 그 때에는 그 겨울바람을 막아보려고 빨갛간 내복으로 기본 무장을 하고 털모자에 끈달린 병어리장갑에 목도리로 완전 무장을 한 다음 삼삼오오 짝을 지은 언니, 오빠들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자정을 넘어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우리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집 대 문 앞, 미리 준비해 온 기다란 초에 불을 밝히고 작게나마 목소리를 가다듬기를 여기저기



에서 아에이오우~~ 찬양 인도자의 기타소리에 맞추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물린 밤~ 주의 부모 앞에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로 시작된 새벽케를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추위를 무릅쓰고 집집마다 돌며 새벽 케를송을 부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한 집에서 대접받았던 따뜻한 차와 음식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이 훈훈해 진다. 아직도 한국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면 집집마다 돌며 새벽케를송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지, 어떤 해는 하얀 눈이 내린 한국의 White Christmas가 그림기가 짝이없다.

그렇게 일 년에 한 번은 나를 꼭 찾아왔던 내 어린시절의 크리스마스는 내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은 후부터는 일 년에 한 번이 아닌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매일의 크리스마스로 바뀌었다. 주위사람들이 미워질 때면 예수님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답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자존심을 내려 놓기를 지금까지. ㅎㅎ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듯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니, 매 한 번이었던 크리스마스가 일년 365일의 크리스마스가 된 그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이제 내 사랑 내 신랑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날까지 매일의 크리스마스를 주안교회에서 보내기를 소망하며 "Merry Christmas~☆"

| 박경숙 기자 |

■ 간증/ 전유정 집사(밸리)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



전유정 집사 (밸리채플 찬양인도자)

2019년의 마지막 12월에 제 삶을 돌아보니 인생의 모든 순간 주님이 돌보시지 않고 함께 해 주시지 않은 시간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하게 됩니다.

해마다 몇 차례씩 제사를 지내고 새해에는 절에 가서 달력을 받아 오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예배드리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집안에서 혼자 신앙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초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홀로 교회에 나갔고 찬양하는 것이

좋아 성가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었던 나를 쟁쟁했던 초등부 성가대에서 가족없이 혼자 교회를 다니는 저는 별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지만 지휘를 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많은 아이들의 질투어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솔리스트도 몇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고 더욱이 세계 최고의 직업은 공무원이라 생각하셨던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서울 시내 모 대학 인문학부에 진학을 하게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인생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20살 대학 1학년 2학기를 마친 어느날 성경을 읽고 있던 저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 '찬양 사역자' 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마음속에 세겨넣은 자의 뜨거운 열정은 아무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나가서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래 연습을 하고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찬양 사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같은 교회 선배가 저와 목소리가 잘 맞을 것같은 사람을 안다며 소개 시켜준 자매와 '소울 싱어즈' 라는 복음성가 찬양팀을 만들어 음반을 내고 미국, 일본, 중국, 호주등을 다니며 활동을 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LA 투어중 만나 결혼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25살 늦은 나이에 다시 송실대학교 교회음악과에 들어가기위해 면접시험을 볼때 면접관이었던 강명식교수님이 "만약 주님께서 목소리를 거둬가셔서 찬양을 할 수 없게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거둬가셔도 제 찬양을 거둬가신 것은 아니니 남들에게 들려줄수는 없을찌라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제 삶을 가장 좋은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부터 노래라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것을 땅에 물을수 밖에 없는 가정환경속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높여지셔야 하는 자리에 제 목소리를 사용해주시는 내 길을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마음다해 찬양하고 싶습니다.

■ EM Hiking

The EM had a joint hiking outing on November 2nd, and although the actual hiking portion of it was short, the fellowship and lunch were amazing. The weather was perfect, save for a slight rain, and we had two split groups that went through Runyon Park (the Hollywood Sign) from opposite sides. That made for some hilarious conversation!

After a refreshing hike (filled with so many adorable dogs), we all convened at Tacos Gavilian, where we indulged ourselves on authentic Mexican cuisine, and shared many memories together. It was a great bonding experience for all of us, and some of the members got together afterwards to play instruments at a nearby Guitar Center! I'm thankful to our Father for a delightful and uplifting outing (and, of course, tacos). | Paul Yang |



■ EM BBQ

On Nov 17th at Barnes Park, the EM had a bbq feast. Old friends who went to different universities gathered together to share a meal and exchange stories of their lives. There were also fun games that involved ICY members as well. Afterwards, everyone enjoyed Korean ribs, hot dogs, ham, chicken, fish, salad, corn, etc. If you missed it, please be involved in the upcoming event!

| Simon Cho 기자 |

■ Family Trip

At the end of September we traveled back to Korea to celebrate their 35 wedding anniversary. We stayed for 5 weeks which encompassed the entire month of October and returned on November 2. The last time we had an opportunity to travel to Korea was back in 2012 so it had been quite awhile.

Many things had changed as they often do with the passing of time, but this time we saw the Lotte Tower for the very first time. The structure was magnificent! One of the tallest in the world!

Our entire trip was spent with Family and it was the best time that I had ever had in Korea. The weather was very nice and it only rained two times so we spent each day exploring with our family. The food was so very delicious that we came back with a few extra pounds too! Family for me made such a remarkable impact! I was not only accepted but sincerely loved each day by extended family members and members of our local church in Korea. We are so very Thankful for our family in Korea and thank our Lord for them always.



| Misuk Baker |

Although many people view Thanksgiving only as a time to feast, it's truly a special holiday that brings

family together. As much as I love my family, spending excessive time together could be exhausting. So, when my parents decided to have a family vacation in San Jacinto, I was extremely hesitant. Needless to say, the road trip was dreadful. However, as we travelled through the desert, there were beautiful mountain range that made me realized how amazing our God is.

Once we got to the hotel, my first thought was to relax. Of course, my parents had other ideas and "forced" me to the pool. Initially, I was upset. But after seeing how happy my sister was, I began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family. In retrospect, this trip taught me that my family relationships can be deeply flawed, still I thank God for them since they are exactly what I need in my life.

| Joshua Cho |



"크리스마스의 꽃" 포인세티아 이야기

포인세티아 꽃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교회 강단을 장식하고 또 많은 가정에서 1-2개의 화분을 구입하여 감상하며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이 포인세티아는 중남미 원산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이다.



면 포기 전체가 곧 시들게 되므로 벌이나 나비가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포인세티아 고르기: 1. 빨간 색의 포엽 밑에서부터 화분흙 부분까지 있는 잎이 진녹색이고 누렇거나 시든 잎이 없는 것을 고른다. 2. 포엽의 가장자리에 녹색인 부분이 없이 완전히 빨간색이나 핑크로 물든 것을 고른다. 3. 잎이 띄엄띄엄 나지 않고 촘촘히 나 있으며 여러 각도로 보아 밸런스가 맞고 균형이 잡힌 것을 고른다.

중세 이후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포인세티아로 교회를 장식하고 축제를 벌이며 성스럽게 여겼다. 미국에는 1820년경 멕시코 주재 미국대사였던 조엘 포인셀(Joel Robert Poinsett)이란 분이 처음 가져온 후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포인세티아(poinsettias)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크리스마스 꽃으로 사랑받게 되고 유럽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포인세티아는 빨강이나 핑크 또는 노란색으로 물든 부분을 포엽이라 부르고 녹색 잎이 있으며 중앙 부분에 있는 작은 노란색 봉우리들이 실제 꽃인데 곤충이 날아와 수정이 되

면 잎이나 시든 잎이 없는 것을 고른다. 2. 포엽의 가장자리에 녹색인 부분이 없이 완전히 빨간색이나 핑크로 물든 것을 고른다. 3. 잎이 띄엄띄엄 나지 않고 촘촘히 나 있으며 여러 각도로 보아 밸런스가 맞고 균형이 잡힌 것을 고른다.

※ 포인세티아 관리: 1. 구입한 후 옮길 때 잎들을 보호하기 위해 짙은 종이나 플라스틱 백을 집에 와서 바로 벗겨 준다. 2. 물은 화분흙의 윗부분이 마르기 시작할 때 주도록 한다. 3. 포인세티아는 아열대성 식물로서 추위에 약하므로 55F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에 보관하면 오래 동안 감상이 가능하다. 4. 직사광선이 쬐이지 않는 밝은 곳에 놓는 것이 이상적이다.

| 나형철 기자 |

■ 포토 에세이



초점 안맞는 나의 인생을...

요즘은 패티오가 있는 식당들이 많다. 나 혼자 패티오에서 점심을 먹을 때가 있었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눈에 뭔가 들어갔다. 안경을 벗고 눈을 부비고 보니 앞에 있는 물체들이 온통 뿌옇게 보였다. 잠시 안경을 벗었는데 너무 답답했다.

난 느꼈다. 나의 앞날이 내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안경이시라는 걸, 그래서 나의 앞을 선명하게 보이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안경이 되어주시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었다. 나의 남은 날 말씀의 안경을 쓰고 걸어가리라.

| 최호기 기자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20년 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민우선, 박경숙,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에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